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3월 15일 주일 설교입니다.

## < 오직 예배, 오직 기도 >

예레미야 29:11-13 / 새찬송가 388장 (통일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 1.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즉 ‘미래’와 ‘희망’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갖기 위해 인간은 이성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지만 세상역사는 진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구조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4-8). 실로 해 아래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류역사에서도 개인의 인생에서도 다 무익합니다(전2:11). 인간이 죄의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롬3:10-18).

### 2.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절대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으로 미래와 희망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절대절망’해야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렘29:13).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사방이 흑암으로 싸여있으나 오직 빛은 한 줄기 즉 위로부터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시 139:11,12). 그런 의미에서 절대절망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미래에 대한 절대절망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께 대한 절대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시 139:11,12),(시144:4). 그럼에도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려 하기 때문이요 둘째 하나님을 믿고 찾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절대절망하지 않고 ‘적당히’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던 절망의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곧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포로생활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니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지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작은 희망으로 적당히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에 절대 절망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절대절망하고 오직 주님을 찾을 때 참된 미래와 희망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약1:17), (시75:6,7).

### 3. 절대절망에서 절대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렘29:11). 또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마실 물이 없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슴처럼 말입니다(시 42:1,2). 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절망할수록 절대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희망의 내일이 열린다는 절대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즉 죄인은 반드시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병자는 반드시 고침 받아 건강하게 되고 저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 받고 축복을 받게 되며 죽을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절대희망을 품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약5:15). 간절히 기도하려면 절대절망과 절대희망이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렘29:12). 기도를 ‘부르짖는다’는 말로 표현한 것은 절대절망과 절대희망이 즉 지옥과 천국이 교차함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믿음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오직 예배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 < 적용 & 실천 >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사슴이 그 목숨의 위기를 느끼며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나요?